

 국토해양부 Ministry of Land, Transport and Maritime Affairs		보 도 자 료	
		배포 일시	2010. 8.11(수) / 총 8 매
담당 부서	4대강 살리기 추진본부 생태경관팀	담당 자	• 팀 장 이형기, 사무관 김 인 • ☎ (02)2110-8930, IN333@mltm.go.kr
보 도 일 시		2010년 8월 12일(목)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간과 자연이 함께 숨쉬는 4대강 만들기 ‘팡파르’

‘수변생태공간 만들기 및 지역명소(景)’ 사업 본격 추진
전국 4대강별 특화된 생태·역사·지역문화경관 ‘거점화’ 추진

- 국토해양부(4대강살리기 추진본부)는 11일 한강·금강·영산강·낙동강 4개 수계별로 기존 자연경관과 생태하천·습지·갈대 군락지 등을 최대한 살리면서 자연환경의 공간을 확장하는 한편, 자전거길·쉼터·전망대 등을 갖추는 ‘4대강 수변생태공간 및 지역명소(景) 만들기’ 사업을 오는 10월부터 본격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수변생태공간 조성은 홍수·가뭄의 재해 예방과 미래지향적인 수자원 관리·활용이라는 4대강 사업 본연의 목적 외에도, 지역주민들이 강을 중심으로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환경과 사람이 조화롭고 행복한 수변생태공간으로 조성하기 위하여, 지역의 문화와 역사를 반영한 새로운 명소로 만들기 위한 작업이다.
- 또한 수변생태공간 조성은 기존의 강 그대로의 자연적 요소를 최대한 살리면서 필요할 경우 환경 개선과 복원 사업을 해간다는 기본 방침 아래, 지역의 자연·문화·역

사 자원을 활용함은 물론 지역주민들의 의견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강별·지역별 특색 있는 4대강으로 조성해나갈 계획이다.

□ 4대강 살리기 추진본부는 현재 이러한 수변생태공간 조성을 위해 지방국토관리청에서 생태하천 설계를 보완하는 작업을 진행 중이며, 지자체와 지역의 생태·문화 분야 등의 전문가, 환경단체 등으로부터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거쳐 오는 9월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10월부터는 나무심기를 하는 등 본격적인 수변생태공간 조성 사업에 돌입할 예정이다.

□ 올 하반기에 본격 추진될 수변생태공간 조성 사업은 전국 4대강의 특색 있는 지점을 ‘경관거점’으로 선정, 각 거점을 중심으로 강마다 형성되어 있는 현재의 자연과 문화·역사 자원을 최대한 발굴하여 자연 그대로 활용하되, 유실 및 소실된 부분을 보완 및 보강하고 산책로, 자전거길 등 다양한 기능을 추가하는 친환경·친자연 조성방식이 적용된다.

○ 제방~고수부지~하천으로 연결되는 ‘통합적 경관’을 조성하고, 4대강(江)별 고유의 경관적 정체성(identity)을 부여하여 수계별·지역별로 하천경관을 특화할 방침이다.

○ 특히 경관거점은, 그 지역과 강의 특성에 따라 생태문화 경관 거점, 역사문화경관 거점, 지역문화경관 거점 등으로 분류하여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 4대강 상하류를 연결하는 자전거 길은, 하천의 협곡부 등 지형여건으로 인해 단절되는 구간에 대하여, 단일 노선으로

강 전체를 종주할 수 있도록 인근 지방도·군도 등에 우회
자전거 길 설치와 이용자들이 편리하고 안전한 자전거 여행
이 가능하도록 숙박시설(바이크텔) 등 편의시설 설치 및 강
변에 입지한 다양한 시설·활동 등과 연계한 이용활성화 프
로그램 개발 등을 위하여 행정안전부·문화체육관광부 등
관계부처와 함께 협의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 특히, 자전거 동호회 등 관련 전문 단체들과의 의견수렴과
자문 등을 통해 주요 역사 및 터미널 등을 기점으로 강의
출발지(하류) 및 종점부(상류)까지 이동하는 방법, 이동 중
단절구간에 대한 우회안내, 쉼터, 강 주변의 이야기 등이
포함된 이용안내서도 만들어 자전거 이용자들에게 편의를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 수변생태공간 조성은 하천환경 개선과 자연생태계 보전은 물
론 치수적으로도 안전하고 각 지역 주민들이 강과 더불어
행복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나가고자 하는 사업으로,
현재 수계별로 8-10여개의 거점지역을 검토 중이나 지자체 등
과의 협의를 거쳐 최종 확정해나갈 계획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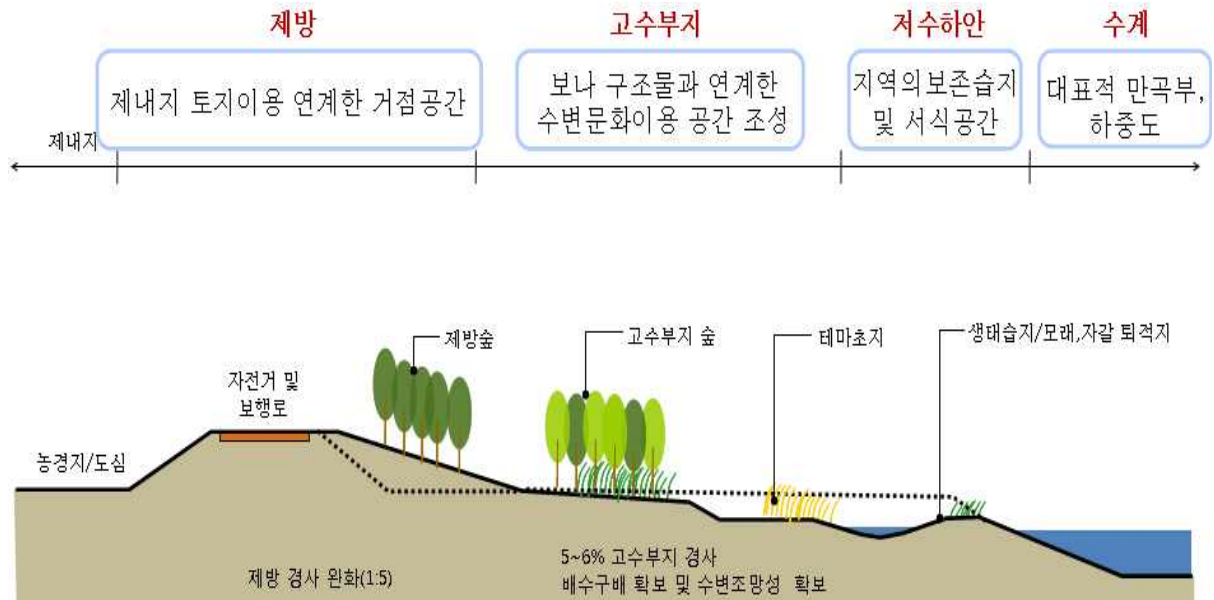
- 계획수립 과정에서 지자체의 의견과 지역주민들의 요구
를 적극 반영하는 등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4대강살리기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상호 협력하여 지혜를 모으
고자 하며, 이를 통해 서로 상생하는 소통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4대강살리기 추진본부 관계자는 “이제부터 지역주민들의

생활과 지역발전에 밀접한 유역의 자연 및 공간 만들기
작업에 착수하는 시점이기 때문에, 해당 지자체의 협력과
아이디어 제안이 절실히 요구된다”며 “지자체와 머리를
맞대고 협력하며 추진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참고 1

수변생태공간 시행방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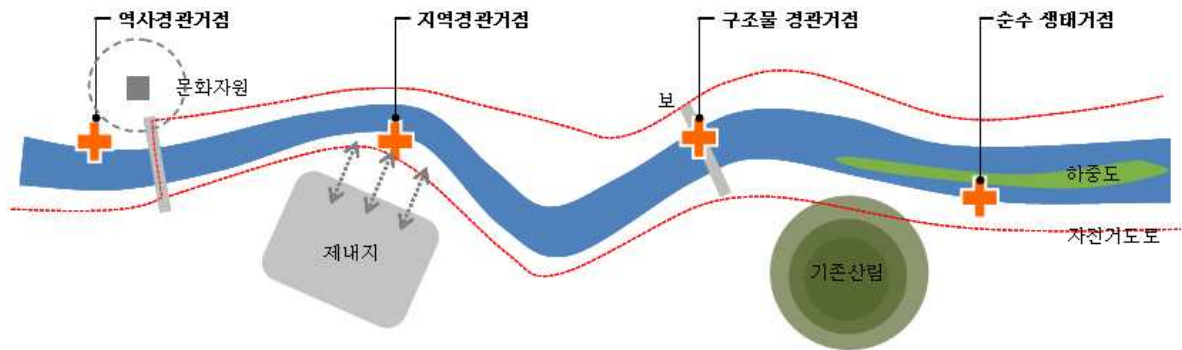


〈제방-둔치-하천으로 연결되는 통합적 경관〉



〈경관구성체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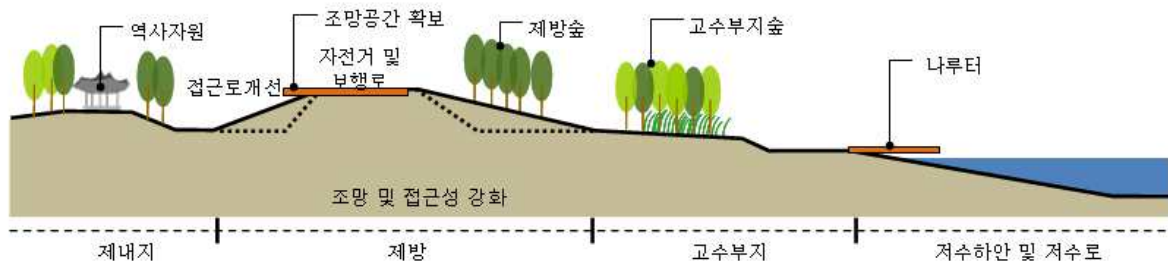
〈생태경관거점 분류〉



역사경관거점	•지역의 독특한 문화 •역사자원과 인접하게 위치하여 경관적으로 이용가치가 높은 지역
지역 경관거점	•제내지의 토지이용이 활발해 이용성이 높은 지역 •제내지의 접근성이 높은 지역 •하천변 경관이 양호한 조망지역
구조물 경관거점	•보 또는 하구둑 등의 신규 구조물이 조성 되는 지역
순수 생태거점	•기존 생물서식처 및 보전림, 습지가 양호 한 곳 •신규 조성되는 대규모 생태습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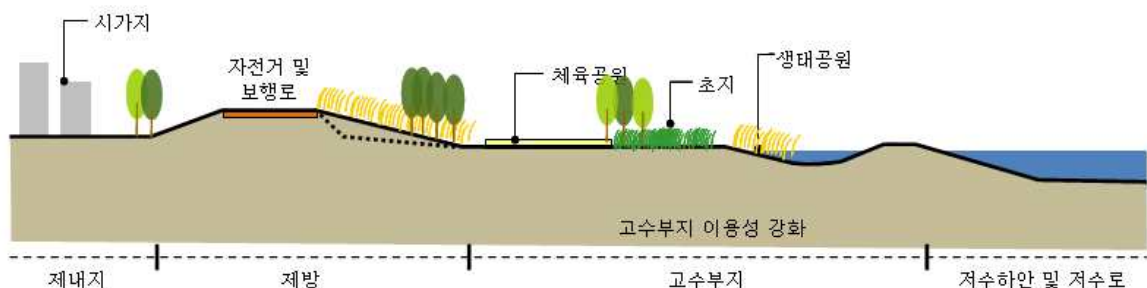
역사경관거점

- 역사자원과 연계한 제방특화로 재내지와의 연계성 강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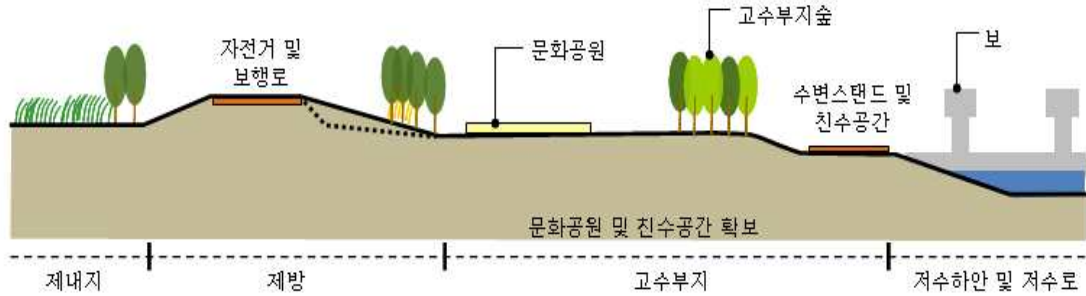
지역경관거점

- 재내지 시가지의 이용성을 고려한 체육공원, 생태공원 등의 다양한 이용공간 조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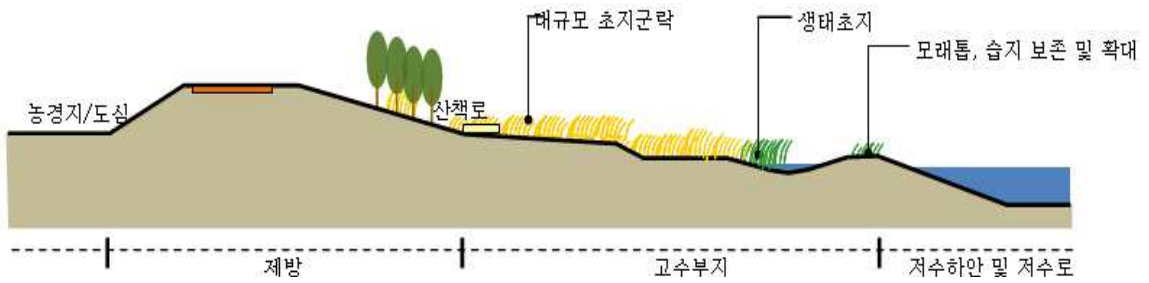


구조물경관거점

- 경관적으로 뛰어난 보의 신설로 유도되는 방문객을 위한 이용공간의 조성



순수생태거점



참고3

낙동강 23공구(강정보) 사업전·후

〈사업전 전경〉



〈사업후 전경〉



참고4

수변생태공간 조성사례

□ 낙동강 하류 우안 숲길(부산 사상)



□ 함양 상림(咸陽上林, 경남 함양 위천, 천연기념물 제154호)



※ 함양읍 서쪽에 있는 위천(渭川) 강가에 있는 숲으로, 통일신라 진성여왕(재위 887~897) 때 최치원 선생이 함양읍의 홍수피해를 막기 위해 만들었음

□ 미국 포토맥강변(워싱턴 DC 인근)

